닥쳐오는 대로 일체 만법을 공부하는 재료로 삼으세요

☞ A33면에서 계속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댁이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나만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난 부모에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미워하다가 미워하는 마음도 또 이뻐하는 마음도 없다는데 댁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미움도 고움도 없었죠? 당신이 그래도 어머니를 빌려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잖습니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생 공부를 배웠지 고생을 안 했더라면 인생 공부를 못 배워요. 남이 쓰린지 고운지 또는 아픈지 그거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느끼게 됐거든요. 곱게 자란 사람보다 더한층 공부를 더 시켰으니 사자가 사자 새끼를 저 내리막에다가 내팽개친 거와 다름없잖습니까.

그러니 고맙게 생각하고 어머니날 꽃을 사서 드리면서 무조건, 밉고 이쁘고 떠나서 무조건 부모예요. 어머니가 살을 주고, 아버지는 뼈를 줬어요. 당신의 영혼은 거기에 부합이 돼서 삼합이 합쳐서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도 감사히 생각하고 이제는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무조건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떠나세요, 이제. 모든 거를 맡겨 놓으시란 말입니다. 모든 거를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재산이 돼서 이 세상에 밝게 빛이 날 것입니다.

"어머니! 이 꽃을 받으세요. 이 꽃은 내 마음의 꽃입니다. 어머니, 꼭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딸 노릇을 꼭 할 겁니다." 그래야지, 밉도 곱도 않다는 게 어딨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그때 당시는 아마 자식이 아팠던 것보다 몇십 곱절 아팠을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죠. 부모는 자식을 배신하는 법도 없고 또 죽이는 법도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면 그 환경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닥쳐온 거예요. 바로 과거에 자기 산 대로 닥쳐온 거지 누구의 탓도 없단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병들었다 그런다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거는 자식들 입장에선 생각조차도 못 할 겁니다. 나가서 다녀도 좋은 게 없고 아무리 우스운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모가 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막 굴리지 말라 이거죠, 젊은이들도. 자기 몸 막 굴리면, 자기 생각대로 막 굴리면 그건 효도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충성도 못 하죠. 또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라고 그랬잖습니까. 자기 몸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을 제도 못 할 땐 자기 집이 있으나 마나예요. 제도 못 하면 자기 집도 망가지지, 자기 집 속에서 사는 자기의 의식들도 다, 인연들도 다 그냥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부모에게 뼈를 받고 살을 받았는데 인간이 돼 가지고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어떻게 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잘해 드리고 잘 입혀 드리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잘 간직해서 건강하고 진짜 인간이 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식이 병상에 오래 있다 보니

질문 자식이 병상에 오래 있다 보니 제 몸도 마음도 자꾸 두렵고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빨리 완쾌되기만을 관하고 있는데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겠죠?

답변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실천으로 옮겨 가려면, 병고든지 가난이든지 안 되는 일이든지 뭐든지, 그 용도에 따라 닥쳐오는 대로 일체 만법을 공부하는 재료로 삼으세요.

> 여러분이 부모에게 뼈를 받고 살을 받았는데
> 인간이 돼 가지고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 어떻게 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참,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고 한 번 쳐다보고 웃고 한 번 내려다보고 울지 않을 수 없는,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설로만 알아서 '큰스님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내가 다 알고 이렇게 행하니깐 뭐, 물을 것도 없고 자실 것도 없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빨리하겠다고 생각도 마시고요. 이것은 빨리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빨리 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면 이렇게 그냥, 시간도 공간도 없이 내가 목마르면 그냥 마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죽게 됐대요. 죽게 된 것도 그렇지만 인체의 건은, 한마음 그 의식에 모두 달렸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정말 주인공 자성 부처로 인정을 해 준다면, 그 의식들이 그렇게 작용해서 건강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머슴도 존대를 해 주면서 인정을 해 준다면 자기 목숨 걸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집 속에 있는 생명들한테 중생이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것들 그냥 모두, 세균 잡속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그런 생명체들을 우습게 보니까 '네가 우습게 보는데, 뭐.'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움죽거리는 거죠.

어린애를 자장자장 하니까 곰이 그것을 흉내 내서 자장자장 하다가 어린애를 죽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미련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내서 오직 나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치가.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몸은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죠.

또 내 주인공과 자식의 주인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자식이 저렇더라도 주인공은 둘이 아닌데, 뭐.' 그러고선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그 주인공까지 또 밝아지거든요. 이 얼마나 좋은 행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적인 실험을 자꾸자꾸 해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한 찰나가 바로 저승이고 한 찰나가 이승입니다. 한생각이 빛보다 더 빨라서 한 찰나에 천당에 가고 한 찰나에 지옥에 가고, 한 찰나가 바로 이승이며, 이승의 천국이며 이승의 지옥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려도 말로는 100%를 꼬집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혹성에서도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질문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지극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다른 혹성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을는지요.

답변 삼천대천세계가, 전 우주가 한 회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회사에서 전부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럭하고 있지만 우린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구에 붙어서 사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붙어서 사는 벌레입니까? 하여튼 막말을 한다면 벌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 붙어서 사느냐. 우리는 그 속에서 진화돼서 우뚝 섰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질로 됐기 때문이죠. 물질로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부 상대성 원리로 '내가 뺏는다, 먹는다, 내가 하나라도 더 올라가야지, 뺏어야지, 먹어야지' 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두 문제가 일어난 거죠. 지금 별성이나 저런 혹성들 이 자체를 본다면 전부 상대성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뺏기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도 이 주인이 없으면 뺏깁니다.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또 자석이라고 하거나 자력이라고 하거나, 자력이 없으면 뺏기듯이 큰 자석이 여기 놓여 있다면 작은 쇳덩어리가 그저 스치기만 해도 그리로 붙어 버립니다. 그렇듯이 이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량 뺏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 사람들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지구에서도 에너지가 무한량 소멸되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혹성 별성과 마주친다 하더라도 여기에 주인이 없다면 에너지는 소모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지구라는 데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면 에너지를 다시 벌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구의 수명은 길어진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영원히 보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왜,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곳이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그 옛날 소리처럼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한번 잘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잠자고 있을 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생명을 내놓는다 한다면, 우리가 이런 도리를 완전히 증득하고 난 뒤에는 모르지만 이 도리를 허명무스름하게 해 가지고는 그 잠자는 모든 걸 깨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잠자는 것을 깨운다면 서로 잡아먹을 테니까요. 진화되지 않은 것도 있고 진화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즉 말하자면 영혼이라는 것을 뺏어다가 막 살 테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남을 거란 말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 멀고 가깝고가 없이 말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조금 갔지 않아?' , 허허허…, 이럴 수도 있죠. 갔다거나 말거나, 그저 난 누가 뭐래도 관여 안 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다 해도 싱긋이 한 번 더 웃어 버리면 덜 늙죠.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정체를 알고 싶다면,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정체를 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 잠자는 모두를 깨운다면, 어느 혹성에서나 생명들이 다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마 허다하게 나오겠죠. 뜨거워서 못 살고, 차서 못 살고, 얼어서 못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조절하기에 달렸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에너지를 나르는 데도 멀고 가깝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물질이라야 나르는 데 멀고 가까운 것이 있는 거지, 물질이 화해서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운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거 같습니까?

나무 껍데기 하나가 가공이 돼서 어떻게 종이가 됩니까? 그렇게 나무 껍데기로 옮기려면 힘이 드니까 종이로 만들어서 옮기면 좋을 겁니다, 아마. 종이보다도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또 있지요. 여러분이 임신을 하면 물질은 다 없어지고 그 아주 형체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게 딱 그냥 헤아릴 수도 없이 같이 몸속에서 자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수천 배 더 가벼운, 형체가 없는 것을 어느 혹성에 갖다가 뿌려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거를 찬 데다 갖다 놓으면 찬 거 녹으니 좋고….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워 놓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이냐는 문제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허황된 소리, 허황된 살림, 허황되게 내 인생을 그렇게 팽개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나와 여러분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 공부를 꼭 해서 앞으로 그 생명들을 건질 수 있어야죠. 이 도리를 모르는 그 생명들과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속에 있는 이 생명들, 중생들은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서 악으로 내가 무엇을 훔치러 간다고 해도 그대로 따라 줘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자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대로 또 따라 줘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을 다스리면서 이끌어 가지고 가야 보살로 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내 혹성에 들어 있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저 딴 혹성에 들어 있는 걸 해결하지요. 내 혹성의 해결도 못 하면서 남의 혹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